

“죽음 기다리면 바보, 실버세대 행복 느껴야”

앨범 ‘인사이드’ 낸 가수 김도향

노년의 사색 ‘재즈’ 선율로
포크부터 CM 송·명상 음악 등
음악인생 50년 아우른 역작
쏟아낼 때 오는 고요는 행복

“실버 세대를 지옥에서 구하자. 멍하니 죽음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 보고 행복이 뭔지 느끼며 살도록...”
수십 년 ‘마음공부’를 집대성했다더니 해탈한 듯한 달변이었다. 과거 광고계를 장악한 ‘CM송 대부’답게 깊이있는 통찰엔 블랙 유머도 섞였다. 오는 12일 14년 만의 정규 앨범 ‘인사이드’ (Inside)를 공개하는 가수 김도향 얘기다.

1970년 남성 포크듀오 ‘투 코리언스’로 데뷔한 그의 나이 74세. 역시 실버 세대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난 그는 “몇 년 전 척추 수술을 받아” 느린 걸음이었다. 그래도 “그 덕에 아흔까지는 거뜰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약 2년에 걸쳐 이 앨범을 작업했다. 계기가 있었다. 부인의 대학 동창들이 요양원에 있는 은사를 만나고 온 얘기를 들으면서다.

제자들은 그날 은사에게 빨간 스웨터를 선물했다. 환하게 웃던 은사는 옷을 입어 보고 싶더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방에서 ‘탁, 탁’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은사는 웃도 못 입은 채 멍한 표정으로 나왔다. 갑자기 치매라든가 온 듯 불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것이다.

“교수로 평생을 산 분인데, 누군가에게 맞지도 뭐라 말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죠. 이 얘기에 마누라도 울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슬펐죠. 65세 이상 실버 세대가 곧 1천만인데, 죽음을 대가하듯 사는 건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황혼기 세대가 자신의 음악에 공감하며 스스로 깨어나길 바랐다. 육체가 노쇠해도, 내면의 성장을 통해 ‘살아있는 이



정규앨범 ‘인사이드(Inside)’ 발매를 앞둔 가수 김도향.

/연합뉴스

순간이 진짜 행복하구나’라고 세상을 달리 바라보길...

“석양을 보며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구나’라고요.”

◇ “죽음은 100년에 한 번뿐인 찬스”
역설적이다. 타이틀곡 ‘쏟아내서 행복하다’는 노년의 무게를 새로운 시작으로 한기한다. ‘기다라다 난 다 늙어버렸어’란 체념으로 시작해 ‘내 마음이 텅 비워지니... 쏟아내서 난 행복하다’라는 성찰에 이른다. 김도향의 낮고 그윽한 소리가 느리고 아련한 재즈 선율 위를 즈려뺏는다.

“된 게 없으니 꿈만 꾸다가 늙은 거죠. 세월이 가는 게 그림고 슬프고. 그런데 사람은 진정 쓸쓸하다 느낄 때 마음이 제일 고요해져요. 그 고요가 실은 행복이거든요.”

온전히 자작곡으로 채운 앨범은 노년의 삶과 시선을 따라간다. 관조적이지만, 내내 슬픈 사색은 아니다. 때론 낭만적인 상상이, 때론 생활밀착형 가사가 미소 짓게 한다. 그는 가장 편안한 리듬으로 전달하고자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는” 재즈를 택했다. 일명 ‘재즈 포크’다. 젊은 음악인들(피아노 안동렬, 기타 하타슈지)이 힘을 보탰다.

완성까지 6개월이 걸린 ‘실버 카페’는 요양원 같은 쓸쓸한 공간에 낭만을 심어주고 싶어 만들었다. 할머니가 된 첫사랑과 마주치는 상상이 등장하지만, 끝내 몽클해지고 만다.

죽음을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에 빗댄 ‘굴뚝이’에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백 년에 한 번뿐인 이 찬스’로 역발상을 했다. “죽음은 슬픈 순간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뿐인 찬스죠. 도망가지 말고 또렷한 정신으로 바라보자고요. 실버들이 제 얘기에 공감해 ‘피식’ 웃으면 좋겠어요.”

◇ “CM 송 3천곡 중 ‘사랑해요 LG’ 기억 남아”

어린 김도향의 꿈은 영화감독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집 인근 극장 우미관 직원이 예뻐해 하루 3편씩 영화를 보여줬다. ‘백지 아다다’부터 ‘19금’ 영화까지 중학교 시절에만 1천편가량을 훑었다. 주제가는 외우

려 하지 않아도 쑥쑥 머리에 박혔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그는 영화판에 조감독으로 들어갔지만 늘 배가 고팠다. 어머니도 모셔야 했다. 이때부터 카바레 등지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월급 5만원씩 여섯 군대를 뛰니 큰돈을 벌 수 있었다. 택시비가 20~30원 할 때다.

1969년, 그는 일하던 무대에서 이미지를 만났다. 등장과 함께 최고 가수였던 이미자는 그의 뒤 타임을 장식했다. “이미자 선배가 흑인 음악을 부르며 애드립을 많이 넣는 저를 보고 ‘노래가 까뽀다’고 말했죠. 하하.”

이미자는 지금의 남편이 과거 연출한 KBS 프로그램에 김도향을 출연시켜줬다. 아는 팝송이 1천곡이 되다 보니 그는 매주 2곡씩 불렀다.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소문나자 다수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TV에서 얼굴이 알려질 즈음, 그는 군대 동기인 손창철과 투 코리언스를 결성해 1970년 9월 1일 데뷔했다. ‘벽오동 심은 뚝은’ 등을 내며 인기를 끌던 팀은 1974년 해체했다. 급기야 그는 대마초 파동에도 휘말렸다. 당연히 설 무대는 없었고, 먹고 살려고 시작한 것이 CM 송 작업이었다. 투 코리언스 시절 오리온제과 ‘줄줄이 사탕’ CM 송이 히트한 덕에 제안이 쏟아졌다.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쁘가요 (중략) 아가시아 켜’, ‘우리집 강아지 뽀빠, 우리 집 화장지 뽀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창작한 3천여 곡 중 그는 1994년 사랑을 테마로 만든 LG그룹 광고를 손에 꼽았다. “한창 산에 다닐 때인데, 요청이 왔어요. 산에서 내려와 회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또 (그를명을 바꾸기 직전인) 럭키금성이 성장한 건 국민 사랑 덕이란 의미를 담았죠.”

그는 50년 이력을 새 앨범에 고집어내고 나니 “다시 속이 깨끗해졌다”며 ‘결결’ 웃었다. 이제 앨범은 내지 않더라도 순간의 생각을 꾸준히 음악으로 들려줄 계획이다. 그 힘을 믿어서다.

/연합뉴스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교수

내일 밤 9시50분 EBS ‘명의’ 출연

‘뇌종양 증상 놓치지 마라’

두통, 청력·시력 저하 등

뇌종양 알려주는 신호

화순전남대병원장인 정신 신경외과 교수가 EBS 1TV 의학다큐멘터리 ‘명의’에 출연한다. 오는 12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고, 16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이날 방송은 ‘뇌종양, 증상을 놓치지 마라’라는 주제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뇌종양의 증상들과 치료법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두통·청력 저하·시력 저하·어지럼증 등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했을 때 느끼는 증상들이다. 하지만 뇌종양을 진단받은 환자들 또한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별 것 아니겠지’ 방심하다가, 자칫 뇌종양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증상들이 뇌종양을 알려주는 신호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3만 1000여 명이던 뇌종양 환자들이 지난 2018년에는 4만 1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뇌종양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뇌종양이 나와는 관계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는 뇌종양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이날 방송에서는 청각신경에 생긴 종양으로 청력이 저하된 노동자,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는 시야장애로 인해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노인, 두통으로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혈관종양성 포종’으로 판명된 남성 등 다양한 뇌종양 사례들을 살펴본다.

질환의 다양한 징후와 함께 진단과 치료, 때론 고난이도 수술을 통해 뇌종양을 완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의료진의 집념과 정성도 생생히 다룬다.

화순전남대병원장으로 재임중인 정



정신 교수

신 교수는 특히 난이도 높은 두개저(두개골의 바닥뼈 부위) 외과수술·정신경·초종수술의 권위자로 이름 높다. 뇌종양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역량과 활발한 국제학술활동을 펼치며 ‘의료 한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장도 맡고 있으며, 대한뇌종양학회·대한두개저외과학회장·대한감마나이프학·사선수술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미래위원회 위원장과 호남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때부터 뇌종양 전문클리닉을 개설, 김인영·문경섭·정태영·장우열 교수 등을 이끌고 탄탄한 의료역량을 발휘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한편 EBS ‘명의’ 프로그램은 현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역량을 가진 의사를 선정하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정성어린 노고와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 등을 보여줘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볼방(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토크 보형설계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서사 콩도령 2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재) 55 이몽(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라크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볼방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전야제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융합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 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똥동맹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방구대장 뽕뽕이 09:00 마사와 꿈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다큐 시선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융합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탐험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하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똥동맹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다큐동화 달팽이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초록빛 매혹스코틀랜드,아일랜드 4부〉 21:30 한국기행 〈맛의 방주 4부 귀하신 목납시오〉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스페이스 공감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부담스럽다면 버리는 것이 낫다. 48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할 것이다. 60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72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84년생 옷은 새 것이 좋고 사 람은 오래 된 이가 좋다. 행운의 숫자 : 35, 28	 午	42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54년생 준비해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분명히 알라. 66년생 지나치 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에 뻔하다. 78년생 묵묵히 이행 하면 된다. 90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 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4, 15
 丑	37년생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 도다. 49년생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61년 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73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질 수다. 85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19	 未	43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케 하리라. 55년생 희망 사항을 이루어 가리라. 67년생 상호적인 협 조가 가능해진다. 79년생 생기는 하나 만족 시킬 정도 까지는 되지 못하겠으니 기대는 하지 말라. 91년생 손꼽 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95
 寅	38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로다. 50년 생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62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 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74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 운 곳에 있느니라. 86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의 천하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9, 61	 申	44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56년생 필히 상호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이변을 자초하 는 동세가 되어 버릴까 두렵다. 80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 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92년생 직접적이지 않다 면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3, 90
 卯	39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는 의문점이 남는 다. 51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될 것이다. 63년생 예견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빈 틈없이 도모한다면 이루어리라. 87년생 바깥으로부터 안 으로 좁혀 들어오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64, 94	 酉	45년생 체계적이여야 한다. 57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69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이리라. 81년생 일취월장할 수 있다. 93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 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52, 13
 辰	40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52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 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64년생 당황하리라. 76 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88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운용하자. 행운의 숫자 : 61, 77	 戌	34년생 맘 풀려 경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보람된 결실을 얻는다. 46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 인다. 58년생 효과가 배가하게 된다. 70년생 예기치 않 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82년생 변화하 는 형세이니 신속히 대응하자. 행운의 숫자 : 79, 92
 巳	41년생 하자가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53년생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기본 에 충실 한다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77년생 투 명함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89년생 무의식중에 넘 어지거나 빚나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31	 亥	35년생 다녀와야 할 곳이 생길 것이다. 47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9년생 일일이 따져보 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71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몰라도 두드리고 건너라. 83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27, 0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